

## 9/28(월) 시편독상 25

### 시편 85:8-13

시편 85 편의 전반부(1-7 절)는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계속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포로귀환을 완성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후반부(8-13 절)에서 시인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교훈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 화평의 조건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 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기서 ‘그의 백성’과 ‘그의 성도들’은 동격으로, 이들은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화평’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에 조건을 달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깨는 악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7:25,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이것은 단지 우리의 행동으로 범하는 악한 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가진 악한 의도와 생각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범하는 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5:27-28,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시인은 9 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9 절상,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9 절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당시 포로기 전후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총만히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기 전에 성전을 떠나셨습니다(**겔 10:18,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리고, 약속대로 70 년간의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 귀환 된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학 2: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총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평강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학 2:8,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 온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화평의 결과로서 10-11 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노래합니다(**10-11 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그리고 ‘진리와 의’가 서로 하나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번영과 구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겔 34:25-29,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의’가 앞서 가시면서 ‘주의 길’을 닦으시리라는 구원의 새 시대를 노래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12-13 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 삶의 축복을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졌을 때 그 나머지도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다시 주님과 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로 하여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살전 5: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대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했던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갈 5:16-17, “..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우리 삶의 평안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 기도제목

1.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의 화평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 된 생각과 행동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아시아의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